

# *Raonatti Force* *In the Philippines*

*- Dec. 12 -*





무엇에 그토록 치열했고, 설렘이었는가. 푸른 드화지, 하얀 구름이 전부였던 비행기 차창 밖과 마주하며, 그 어떤 떨림과 두려움, 기대들을 마음속에 품었었나. 이제서야 처음 그날의 두근거림을 새삼 꺼내어보는 것은, 야속하기만 한 시간의 흐름 속에 고이 간직될 추억들과의 헤어짐을 준비하기 위해서일까.

그들과 함께하는 것과 그들이 된다는 것. 그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방황들과, 다름을 인정 하면서도 우리들만의 색깔을 잃을 순 없었기에 가져야만 했던 수많은 고민들은 이 모든 치열함의 아성으로써 혁혁히 쌓아 올려졌다. 마음속의 갈등과 고뇌가 생채기 낸 명광의 상처로써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어리석게도, 자꾸만 붙잡고 싶어진다. 미련하게도, 자꾸만 지나온 길을 향해서 돌아본다. 낙관적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순 없었지만, 세상을 움직여가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12월.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애뜻함과 새해의 시작이라는 설렘이 묘묘히 교차하는 시간. TKDC Graduation을 마친 우리들은 이곳 Filipino들에게 조차도 낯선 소수부족 Aetas community로 떠났다. 직접 물을 피우고, 물을 길러다 나르면서, 원래 이 땅의 주인이지만 제한된 공간에 거주하며 차별 아닌 차별을





감내해온 그들과 함께 서려 노력했다. 작은 키에 굵은 머리, 유달리 까무잡잡한 피부, 여느 Filipino들과의 다른 생김새가 이들이 느꼈을 아픔을 대변하고 있는 듯 했다.

9월 8일 이후 약 100여일 만에 다시 만나 뵈었던 송 실장님과 박 총장님, Coworkcamper로서 항상 우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줬던 NEHS Hi-Y 친구들과 NEUST Uni-Y 친구들과, 영원한 귀염둥이 Valle Cruz 아이들, 이웃 동네 Palayan에서 건너온 아빠 벨트 등등의 수많은 출연진들과 함께 한 우리들의 각 할 없는 에피소드, 지금 시작한다.







## *- Contents -*

1. TKDC

2. Valle cruz

3. Calamansi festival

4. Aetas

5. Something else

- Medial evaluation

- Manila

- Christmas

6. Looking back...





# 1. TKDC

졸업.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추억들과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지, 어릴 적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며 우리들은 과거 행 열차에 몸을 싣는다. 그저 '졸업장'이라고 쓰인 차갑고 얇은 종이 한 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왜 미처 몰랐을까. 그 한 장에 담긴 기억의 마디마디, 이야기 한구절 한구절이 그토록 아름답고 소중한다는 것을...

사전상의 의미를 차치하고, 졸업은 곧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그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더 큰 세상을 향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 이들을 응원해주는 자리, 졸업식. 약 한달 반에 걸쳐 진행됐던 Tae kwon dance class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아이들과 Tae kwon dance 이외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틀린 동작 하나에도 함께 웃고 즐거워하던 아이들과의 작별을 갈래기 위해 조출한 파티를 마련했다.

당초 우리들은 class 공간을 마련해주신 목사님과 kuya morito, 학부모님들을 초청해 놓고 presentation을 겸해 졸업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목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셨고, 일정이 중간평가와 맞물려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



로 간소 하지만 기억에 남을 우리들끼리의 파티를 준비했다. 간단한 다과와 졸업식 분위기를 내기 위한 각종 장식들, 그리고 아이들의 책상 한 귀퉁이에 뽀뽀이 자리잡게 될 졸업장까지...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 졸업식은 Tae kwon dance 발표와 다과회, 졸업장 수여 및 기념촬영 등을 거쳐 6시에 끝이 났다. 비록 연습한 만큼의 실력 발휘는 못했지만, 우리들의 시범 없이 그들 스스로 태



권댄스를 척척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노력이 졸업장에 인쇄된 우리들의 이름과 친필사인 만큼이나 뜻 깊고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모를 것이다. 과거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훗날 시간이 흐른 뒤 그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비춰보며, 멀리 한국에서 온 언니 오빠들이 자신들과 함께 했음을 추억할 것이다. 우리가 비록 그들에게 물질적인 커다란 무언가를 안겨주진 못했지만,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함께 했기에 행복했던, 즐거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스 지을 것이다. 언제나 밝고 활기 넘쳤던 그들만큼이나, 그들의 삶도 희망으로 가득 차길 기도한다.





## 2. Valle cruz

Valle cruz D.C.C에 큰 변화가 생겼다. 예전부터 계획했던 페인팅 작업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작업에는 Aetas community work camp와 중간평가, Christmas vacation party, TKDC Graduation, 비자연장 등의 일정과 맞추기 위해 주말과 오전, 오후 구분 없이 팀원들 모두 매달렸다. 3기 단원들의 노고가 깃든 D.C.C 건물에 우리들의 페인팅이 보기 좋게 어우러져, 아이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바람가이 Community 명소로 자리잡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무선 아이들과 수업시간에 함께 붙였던 공 세마리 송과 물챙이 송의 주인공들을 전면 배치한 후, 중앙에 필리핀 국기와 태극기를 그려 넣고, 사이사이에 사과 나무와 꽃들로 마무리 했다. 수업시간 배운 것들을 직접 그림으로 확인해볼게끔 하는 실용성과, 필리핀에서는 눈 색고드 찾아볼 수 없는 사과나무를 전혀 낯설지 않게 담아낸 예술성을 겸비한 이번 작품에는 팀원 Yun(안재윤)과 Bona(박은경)가 특히나 교생해 주었다.



D.C.C의 첫인상을 위해 건물 외벽을 보기 좋게 꾸렸다면 이번 내부를 내실있게 다질 차례였다. 우리들은 어릴 적 교실 뒤 게시판 환경심사를 위해 방과 후 희생양이 되곤 했던 아픈(?)에서 영감을 얻어, 수업 시

간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아이들 각자의 꿈이 담긴 카드들과 색칠 그림 등을 전시



했다. 그 누구도 아닌, 아이들과 우리들이 직접 만든, 손길이 깃든 작품들이었다.

12월 14일. 이날은 중간평가의 날이기도 했지만 D.C.C의 크리스마스 방학식이

있는 날이기도 했다. 이곳

사람들에게 한국음식을 소개

하기 위해 팀원 Yuni이

직접 50인분 비빔밥을 준비



비빔밥, 아이들 수만큼 크리스

마스 선물까지 준비했다(자금

출처는 비밀).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들과 매일 한 시간

씩 맹연습한 znei의 'Fire' 안무도 빠트릴 수 없었다. 특히 안무의 경우, 평소

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필자 (Min, 이동민)가 어머니들의 응원에 힘입어 허

리를 돌려댄(?) 덕분에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한다.



신이 난 아이들과 동네 강아지, 평소엔 구경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음식  
들... 그 모습은 사뭇 달랐지만 우리들에게도 유년시절 방학만을 손꼽아 기다리  
던 때가 있었음을 일깨워주었던 이런 풍경들은 방학식이라기 보단 작은 마을 잔  
치에 가까웠다. D.C.C 주변 주민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나누고 건물을 구경하며  
아이들과 우리들의 공연을 격려해주었고, 점차 달라지고 있는 D.C.C의 모습을  
신기해 하는 듯 했다.

이곳 D.C.C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로 인해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Community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첫걸음을  
뒀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본명 Community worker에 조금씩 근접해 가  
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춤을 추고 웃고 즐기고 있  
는 동안 우리들은 본명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3기 단원들의 활동 지역과 같은 곳에 오게 되면서 같  
은 Community,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Community  
worker로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시기는 다르지만 공통된 장소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열정을 쏟고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의 일기를 써내려 갔던 우리는 '라움아띠'



라는 행사란 이름 아래 하나 될 수 있는 꿈 많은 대학생들이었다.

방학식이 끝나고 나면 다음달 초까지 아이들을 볼 수 없다. 2011년 희망찬 새해의 시작만큼이나 언제나 변함없을 시끌벅적한 아이들이 벌써부터 보고 싶어진다.





### 3. Calamansi festival

우리들의 활동지 Cabanatuan city와 북동쪽으로 접해있는 Palayan. Cbnt 바다 크진 않지만, 드넓게 펼쳐진 들판과 야트막하게 이어진 산세가 시원하게 어우러져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전원도시다.

Nueva ecija YMCA Board Member로 계신 Palayan city council 위원 Papa Bult의 초청으로 우리들은 이 지역 대표 축제인 Calamansi<sup>1</sup> Festival을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시 설립 45주년 기념 행사와 같이 열려 다양한 경연대회, 노래자랑, 초청 공연, 댄스타임 등 보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축제가 열리는 Palayan 시 Compound에는 벌써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었다. 시 장님을 비롯해 시청 관계자분들, 시의회 의원들, 경찰, 그리고 축제의 주인공인 시민들까지, 말 그대로 북새통이었다. 시 관계자 분들의 배려로 우리들은 무대 바로 앞에 위치한 내빈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특별히, 학교를 졸업하고 시의회

<sup>1</sup> 갈라만시. 지역 대표 농산물로, 생김새는 우리가 접해본 금귤과 비슷하지만 색깔은 짙은 초록색이다. 주로 간장 등의 소스에 레몬처럼 짜서 곁들여 먹으며, 음료로도 먹는다. 가공할 정도의 신맛이 특징이다.



인턴으로 근무중인 Rosalio가 가이드로서 축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날 오전 열린 각종 경연대회는 각 바랑가이를 대표하는 주민들이 모여 대항전 형식으로 치러졌다. Calamansi 음료 빨리 마시기, 포대에 담긴 Calamansi 빨리 옮기기, Calamansi 과육 채 먹기 등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그 많은 열매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공수해 오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축제에 사용되는 Calamansi의 양은 엄청났다.

오후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다. 성인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약 20여개 팀이 참가해 같은 음악을 배경으로 댄스를 비롯한 각종 퍼포먼스를 펼쳤다.







각 팀들이 경연장소인 축제 앞마당으로 집결하기 위해 거리 댄스 퍼레이드를 벌일 때, 우리들 또한 그들 뒤에서 어설프지만 몇몇 동작을 따라 해 보았다. 가까이서 지켜볼 그들은, 내리쬐는 12월의 햇빛에 땀은 땀으로 흥분하여 있었지만, 지역 대표 축제에 당당히 참가한다는 자부심으로 동작 하나하나에 열정을 쏟고 있었다. 그 결연에 찬 미소들과 절도 있는 춤사위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획기적인 경연의 시작. 같은 노래를 20번 듣는다는 것이 그리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각 팀들 저마다의 특색이 묻어나는 그들만의 퍼포먼스가 우리들의 눈을 끌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Calamansi 축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참가팀들 모두 하나의 concept를 잡고 의상과 도구를 준비했으며, Calamansi의 수확 장면, 선녀들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장면 등을 곳곳에 삽입해 다채로운 레퍼토리 속에 주제의 통일성을 더했다.

각 부문의 1, 2, 3위 수상팀들에게는 각각 8,000페소, 5,000페소, 2,000페소가 상금으로 주어진다. 대회가 끝난 후 각 수상팀들이 호명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했던 소품들과 의상들을 벗어 던지며, 환희에 찬 교감을 지르며 기뻐했다.

2 1 peso 는 약 25원(2010년 12월 현재)이다.



우리들에게도 과연 저런 순간이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상급의 액수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듯 했다. 그저 축제에 참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었다는 것, 그 무언가에 그들은 이미 하나되어 있었다.

이곳 Palayan 시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터사이클이다. 잘 꾸며진 언덕 트랙에서 매주 주말 열리는 모터사이클 레이스. 전날 휘황찬란했던 하루를 보내고 Papa Built의 안락한 집에서 하루밤을 보낸 우리들은 그 다음날,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익사이팅 스포츠 경기의 매력에 흥분해 빠져들었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모터바이들과 넘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하는 선수들까지, 그리고 잠시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관중들의 함성... 최근 들어 한 곳에 그렇게 집중하고, 탄성을 자아내던 순간은 없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살아있었다.

모터사이클을 관람하고 난 후, 우리들은 영광스럽게도 시청에서 시장님과 함께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 아키는 필리핀 현 대통령과의 독대 사진이 자랑스럽게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우리들을 안내한 시장님은, 자신의 가



죽과 간부급 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개시켜 주었다. 시장과 간부급 시 공무원들이 친구처럼 격 없이 지내는 모습은 꽤 흥미로웠다. 주말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들이 마치 하나의 대가족처럼 보였다.

평바닥에 즐린 음식을 한 달은 죽히 빠지 않은 것 같은 반바지에 스스 댕아 아무렇지 않게 주워먹는 교홀리개 아이를 바라보다, 시청에서 호화로운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는 이내 곧 생각에 잠긴다. 선명하게 대비되며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 두 장면 사이에서 우리는, 이 나라에 최소한의 복지는 있는 것인지, 가난과 굶주림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들에게 되묻는다. 보다 나은 삶을 겪어 보지 못해 현실에만 안주하려 하는 그들을 타할 순 없겠지만, 웃고 즐기는 것을 유달리 좋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틀렸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그저 때되면 찾아오는 투표일이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형식적인 시장 찍기가 민주 공화국을 살아가는 시민의식의 전부가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이번 방문은 주말 동안 이루어 졌다. 일주일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을 반납해야 했지만 우리들은 그만큼 또 일기장을 새롭게 채워 갈, 조약돌 같이 새록새록 빛나는 추억들을 얻었다.



## 4. Aetas

자외에 의한 것인지, 타외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만의 울타리는 너무 높아 보였다. 산길을 따라 20여분 달려 도착한 Aetas Community. 집을



잔뜩 실은 지프니 뒤로 손짓하며 쫓아오는 아이들을 보며, 그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관찰자의 냉소적인 시각과 같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했다.

화산 폭발과 동시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부족 사람들은 필리핀 각지로 흩어졌다. 정부가 이들의 주거를 책임 진다는 명분 아래 대대적인 개발이 이



루어졌지만, 저지대 생  
활에 습성이 녹아 들지  
못한 Aetas는 다시 현  
실과 멀리 떨어진 산속  
으로 깊숙이, 깊숙이  
숨어들었다.

무엇이 그들을 그곳으

로 내몰았을까. 비가 오기 전까진 빈 펌프질에 물 대신 먼지만 잔뜩 쌓이는 그곳  
에서, 부족 사람들 이외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진심으로 폐쇄된 공간에  
서 그들은 무엇을 꿈꾸며, 어떤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까.

단순히 어느 Filipino들과는 다른 그들의 생김새 때문만일까. 어떤 응어리가  
그들의 가슴속에 맺혀, 속세와의 불협화음을 꿈꾸는 걸까.

이번 Work camp에는 Nueva ecija High school YMCA에서 활동하고 있는 Glennel과 Cedie, Topher, Emer, Rustom과 Uni-Y에서 활동하고 있는 Work camp 베테랑 Efren, 그리고 그의 친구 Ian과 사촌 JP, Larry, 멀리 타지역에서 역시 YMCA 활동을 하고 있는 Bernard, 마지막으로 우리 라운아띠 5명, 이렇게 총 15명이 참여했다. 지난 5월 Work camp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난 참가자들을 덕분에 우리들은 학과 MT가는 것만양 들렀다. 특히 이번 Work camp를 떠나면서 이곳 사람들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지프니를 처음 타보았는데, 일컬로 마주 보며 앉아 이동하는 지프니는 마치 Yun과 필자의 근대시절을 연상케 했다.

우리들은 바랑가이 관계자분의 도움으로 Community 내에 위치한 kalikasan 초등학교의 교실에 짐을 풀었다. 일주일간 15명이 지내기에 딱 알맞은 크기의 교실은, 아이들이 꼭 붙어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때론 졸면서 책과 씨름했을 작은 책걸상들이 뽕기뽕기 모여있어 우리들의 등심을 자아냈다.

우리들의 Work Camp는 5명씩 총 3개의 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곳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할 Education팀, 그리고 각종 체육활동을 담당할 sports팀, Camp site정리와 각종 굶은(?)일을 담당할 Engineer팀이다. 극적과 소식을 떠나 우리





우리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ducation	Sports	Engineer
• Yun	• Soo	• Min
• Esther	• Emer	• Bona
• Glennel	• Rustom	• Efren
• Cedic	• Larry	• Ian
• Topher	• Bernard	• JP

우리를 직접 길러와서 설거지를 해야 했기에, 우리를 직접 피워서 밥을 지어야 했기에 우리들은 work camp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팀 별로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했다. 우리들은 크게 밥짓기와 물 길기, 캠프장 청소로 임무를 나누고 각 팀이 돌아가면서 한가지씩 맡기로 했다.

kuya Morito는 첫째 날,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일을 나눠서 하는 camper 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숙련 비숙련을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다 동등한 지위의 camp 참가자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 점을 반영해 officers of the day



라는 책임자 역할도 camper 2명씩 짝을 지어 날마다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다. officers of the day는 팀 별 역할을 배분과 출입자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그날의 총 책임자다.

DATE	OFFICERS OF THE DAY
12.17	EFREN & IAN
18	MIN & TOPHER
19	BONA & EMER
20	ESTHER & CEDIE
21	J.P & LARRY
22	BERNARD & GLENNEL
23	YUN & SOO & RUSTOM
23	YUN & SOO & RUSTOM
25	BERNARD & GLENNEL

조금은 산만했던 첫날, 첫 밤이 지나고 둘째 날이 밝았다. 여름이라곤 하지만 고지대라 새벽은 추웠다. 게다가 여행용 매트리스가 모자라 얼음장 같은 교실 바닥에 얇은 천 몇 장만을 깔고 잠을 자야 했던 필자는 배근함을 온 몸으로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각 팀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맡은 임무에 들어갔다. Education팀은 한국어, 수학, 영어, 노래 배우기 class를 각 교실 별로 나누어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Sports팀은 농구교실과 풍선 등을 활용한 각종 게임을,  
 Engineer팀은 학교 안 청소와 잔디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필리핀 학생들과 한 팀이  
 되어 일을 하나같이 있어 가  
 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었

다. 무작정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자신  
 들의 생각들을 조율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우리들은 때론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막연히 그들이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려 들지는  
 않았는가. 우리들의 생각이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의견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물론 이것 또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려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이런 어려움들에 우리들은 힘이 빠진다.

다음 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이들로 북적이던 학교가 텅 빈 것이다. 마치 짜기라도 한 듯이, 길거리에서 서성이던 아이들은 쉬사리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과의 수업이 예정되어있던 Education팀은 크게 당황했고, 덩달아 다른 팀들까지 서둘러 수신문에 나섰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Aetas는 여러 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특히나 우리들이 그곳에 갔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여기저기서 슬리퍼와 장난감 같은 생활품들을 제공받고 있었다. 자신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외부인의 발길이 잦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표면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상대적인 필요로움이 그들의 사고방식마저 바꾸버린 걸까? 우리들은 진짜가 아니라고 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우리들은 자신들을 도우려 온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화가 났다가기 보단, 안타까웠다. 도움을 받는 것에, 물질적인 필요로움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들은 그 옛날 이 땅의 주인으로,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터전을 지키던





그들 본연의 모습들을 정녕 잊은 것일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이상주의자일지도 모른다. 만일 그들이 우리들에게, 아이들과 그냥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공놀이를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삶에 있어 나아지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그저 우리의 진심을 그들이 알아주길 바랄 수 밖에 없었기에서 그렇다. 이것이 한계라면 한계일까.

해질녘의 오후, 드넓게 펼쳐진 들판과 먼 산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만들고, 그 위에 조랑말 한 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던 그곳. 개발이 낸 상처라곤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풍경만큼이나 때문지 않은 사람들을 기대했기에, 우리들의 실망은 컸다.

그날 저녁 곧바로 회의가 소집됐다.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있기에, 사람들을 어떻게든 학교로 모아야 했다. 마지막 날 밤, Community 사람들과 함께 송년파티를 하기 위해서라도 모해를 풀어야만 했다.

전날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다음날 우리들은 아침 식사 후 Community 전체를 돌며 쓰레기를 주웠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다가가고자 했

다. 새소리가 나는 작은 수공예품을 만드는 할머니, 펌프에서 빨래하는 아주머니,  
거실에서 낚잡 자던 아저씨...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이해하려 애썼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들의 이런 모습  
들은 오히려 우리들을 향해  
무언가 말하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 보다 훨씬 낫았다. 쓰레

기를 줘는 우리들의 행렬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는  
꼭 학교로 오겠다는 약속도 해주셨다. 정말 오는 건지,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고  
오는 건 아닌지 알 순 없었지만, 전날 머리를 맞대던 우리의 노력들이 소소한 변  
화를 이끌어 냈다는 것, 의미 있는 일이었다.

camp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오후 우리들은 kuya Morito와 함께  
Globalization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곳에 있  
는 것도 세계화의 한 단면일 것이다. 세계화는 시대의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 속에서 혹  
시나 있을지 모르는, 아니  
분명히 존재하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들은 생  
각해야 한다.

캠프의 마지막 날 밤, 우

리들의 바람대로 학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과 아버지들  
까지, 말 그대로 동네 잔치 분위기랄까. Hi-Y 팀의 주도아래 아이들과 어머니들  
이 함께하는 게임이 이루어졌고, Uni-Y 팀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기 대  
회와 원반 던지기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우리들은 작은 공연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 마지막  
밤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의자를 깔고 스피커를 달고 조명을 점검했다. 라문아띠,  
Hi-Y, Uni-Y 각 팀들이 준비한 공연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우리  
들은 태권댄스와 사물놀이, 'Fire' 안무를, Hi-Y 팀은 짧은 콩트와 댄스를, Uni-Y  
팀은 karade와 인형극을 준비했다. Hi-Y 팀의 콩트는 현지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Uni-Y 팀의 karade와 인형극은 많은 시간 연습한





혼적을 벗출 수 있는 수준급의 공연이었다. 우리들도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웃고 즐기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 동안의 모험과 그로 인한 실망감 따윈 없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일주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 마지막 산행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Camp 참가자 모두 산을 오르는 것은 일종의 Work camp만의 전통이라고 했다. 평소 등산을 즐겼던 필자와 산을 진심으로 싫어했던 팀원 Bona의 희비가 엇갈렸다.

산으로 떠나기 전 Camp site에서의 마지막 아침식사 시간, kuya morito는

camper들에게 두 명씩

짜를 지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주는 식사 방법을 제

안했다. 우리들은 서로 마

주 받고 서서, 뺨갈아 가며

서로의 입에 숟가락을 내



밀었다. 입 주위가 엉망이 되고, 웃느라 뺨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



지 몰랐지만, 순간 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간의 도움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이 과연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생각들을 했다.

우리들의 역사상 기억에 남을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산으로 갈 준비를 마쳤다. 갓 나온 따끈따끈한 티셔츠를 모두 맞춰 입은 우리들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하나였다. 힘든 여정이 될 것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결연에 찬 의지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work camp를 끝까지 마치리라는 다짐을 한 장의 단체사진 속에 담았다.





길은 험난했다. 길이라곤 하지만  
 허리까지 자란 풀들을 헤쳐가며  
 앞으로 나가는 힘겨운 작업이 계속  
 됐다. 게다가 가시가 돌아난 풀  
 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들의  
 다리를 감싸는 바람에 긴 바지를  
 입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으로 다가왔다.  
 전날 비로 갑자기 불어난 시내물을 맨발  
 로 건너고, 길게 자란 풀 줄기에 의지해  
 급경사를 올라왔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우리 모두 다 한마디의 말 없이 묵묵히 걸  
 었다. 이따금씩 미끄러지는 동료들을 잡아주면서...



바람이 상쾌해진다. 새파랗던 풀빛들이 햇빛을 받아 더더욱 반짝인다. 주변 산  
 과 들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서있는 곳보다 높은 곳은 없  
 다. 정상이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들은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그  
 트록 진지하던 우리들의 표정에도 점차 웃음이 번진다.





터 좋은 나무그늘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땀 풀러 앉아,  
잠시 숨을 고랐다. 다들 머릿  
속은 지난 일주일들을 돌아보며,  
활동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kuya Morito가 항상 강조하

는 것이 있다. 바로 sharing(공유)다. 우리들은 각자 돌아가면서, 정리한 것들  
을 함께했다.

자발적 불편. 라온아띠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누  
락하지 않은 많았던 work camp를 마무리하는 자리. 시원섭섭함과 무사히 마쳤  
다는 성취감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기대했다면 오산이었다. 각자가 그 동안 담  
고 있었던 동료에 대한 섭섭함과 미안함을 이야기하면서, 꼭 반친 감정을 억누  
르지 못해 눈물을 쏟아냈다.

유달리 장난스러웠던 Bernard, 자신의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동료들  
의 자신을 향한 아쉬움에 대해 진심을 토로했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불우  
했던 가족사를 극복하기 위해 항상 밝게 생활하는 Emer, 그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눈물을 보았을 때 우리들 또한 그와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시선을 그에게 집중했다.

웃다가 울었다. 기대감에 부풀다 이내 실망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용기는 곧 현실에 부딪혔다. 길고도 짧은 일주일도 그렇게 흘렀다.

전체 활동의 종반을 향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은 더 복잡하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마다 새롭게 적응하고 무언가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들을 짓누른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들과 더 함께 하지 못하고, 그들의 보석 같은 미소를 놓칠 때가 많다. 별말이 전도된 것만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은 때론 안타깝다.

수많은 감정변화와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험겨웠던 시간, 하지만 이곳 친구들과 함께 했었기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시간.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우리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KB와 함께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

RaomAtti





## 5. Something else...

### - Medial evaluation

항상 부담으로 다가 오지만, 어떤 과정에서든 그것이 있기에 그로부터 자극 받고, 열정을 불태우며 훨씬 더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바로 평가다. 어느덧 활동의 종반을 향해 시간의 추가 누엣누엣 기울던 12월의 중순, 예정대로 한국에서 송진호 실장님과 박장동 대전 YMCA 사무총장님께서 오셨다. 비록 중간평가라는 무시무시(?)한 중책을 들고 오셨지만, 평소 길거리를 지나며 KFC 간판에서 밖에 인사 드릴 수 없었던 송 실장님을 직접 뵈는 순간, 100여일 만에 만난 라운아띠 대장(?)님 특유의 푸근함과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아버지와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우리들의 중간 평가는 평소 쉽게 접해 볼 수 없었던 안락한 호텔 식당의 Room에서 깔끔하게 정돈된 Filipino 음식들을 먹으며 진행됐다. 12월 바쁜 일정의





정 중량을 달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사실 Presentation을 앞두고 먹는 음식들의 맛을 100% 음미하기엔 무리였다.

하지만 우리들은 진심으로, 이때 아니면 이런 음식들을 두 번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을 곁집으며, 차례차례 접시를 비워나갔다.

식사 후 우리들은 이제껏 해왔던 활동들을 정리한,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달의 계획을 담은 Presentation을 가졌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뿌듯했다. 다가도, 힘겨웠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면 이내 차분해졌다. 우리들의 활동들 뿐 아니라 현장에서 느꼈던 생각들, 우리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고민들을 여과 없이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번 presentation은 감기몸살에도 불구하고 자료정리에 발표까지 애써준 팀원 Esther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다른 일정이 겹쳐 팀원들의 도움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끝까지 일을 마쳐준 그녀의 희생정신과 책임감에 팀원들 모두 고마움을 전한다.

중간평가 날짜가 Valle cruz D.C.C Christmas 방학식 날짜와 겹치면서, 둘 중 어느 하나에만 몰두할 수 없었기에 우리들은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충실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라몬아띠가 지속되기 위해서 활동을 중간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에 대한 격려로,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의 마무리에 대한 걱정과 충고로, 가슴에 와 닿는 응원을 해주고 가신 송 실장님과 박 총장님. 한 달 뒤 다시 뵙는 날이 기다려진다.







## - Manila

당초엔 Work camp가 끝나고 우리들의 Vacation이 예정되어 있었다.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필리핀 북쪽 루손섬의 주요 도시를 둘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황금 같은 일정에 우리들은 들떠 있었다. 하지만 사람 일이란 늘 그렇듯, 일정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그 어느 누가 인생이 고달프다고 얘기하겠는가? 예기치 못한 재정상의 문제로 우리들의 여행 일정은 다음달로 미뤄졌다.

꿈 대신 잔이라고 했던가. 우리들은 팀원 Esther(홍인영)의 부모님과 평소 잘 알고 지내시는 목사님 대으로 초대를 받았다.

Manila에 위치한 목사님 대은 학업을 위해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숙식하는 기숙사와 교회, 가정집을 겸해 지어져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다. 깔끔히 정돈된 방들과 현지에서 맛볼 것들 중 최고였던 한국식 식사, 그리고 팀원들의 승부욕을 자극했던 부루마블 게임까지... 모처럼 우리나라 사람들과 뵈면, 친근했던 2박 3일이였다.

우리는 2박 3일 일정으로, 새해를 마닐라에서 맞을 계획이었다. 목사님의 아들이자 Esther와 막역한 친구인 윤태식 군의 도움으로 마닐라의 주요 명소를 친절

한 설명과 함께 자동차로 둘러 볼 수 있었다.

마닐라 중에서도 상류층이 거주하는 Eastwood. 마닐라의 북동쪽 Quezon city 에 위치한 이곳은 마닐라 중에서도 고층빌딩들이 다투어 들어선, 그래서 조금은 이

국적인 특색이 풍기는 곳이다.

각종 공연장과 Mall이 즐비하게 들어서 하나의 놀이공간을 이룬다. 다소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세계다.

12월 31일. 다사무난 했던

2010년의 마지막 밤을 위해

우리는 Manila가 내려다

보는 Antipolo 지역

Cloud 9으로 모였다. 칠곡

같은 어둠 속에 끝고루 퍼져

있던 십수만개의 불빛들, Manila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 해를 무사히 마치

며 서로를 축하했다. 가볍게 맥주 한 잔을 걸치며, 지난날을 떠올리며 이야기 끝을







피웠다. 2011년 12월 31일에도, 2012년 12월 31일에도, 그 다음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기억에 남을, 2010년의 마지막 밤이었다.

도시 전체가 화려한 불꽃들의 경연장이 되기라도 한 듯이, 여기저기서 새해를  
축하하는 불꽃놀이들이 어둠을 수놓았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불꽃놀이는 절정에 달  
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불꽃들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볼 적  
은 없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그렇게 불꽃들로 가득 채워진 광경  
은 아아 앞으로는 보기 힘들 것이다. 하룻밤 새 터진 그 수많은 불꽃들, 그 돈이  
면 수채의 빌딩을 물리고, 전철 노선 하나를 건설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  
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추억  
을 선물 한다는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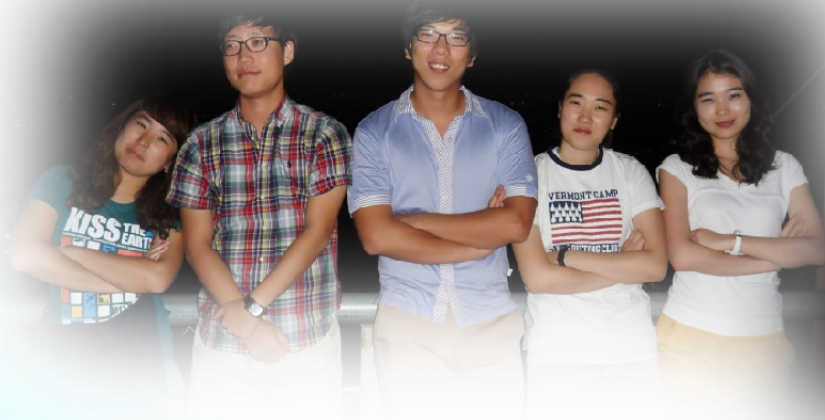
Manila에서의 새해가 밝았다. 아침 식사를 위해 1층으로 내려온 우리들에게 뜻  
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떡국이였다. 올해 새해 첫날에도 어김없이

새해를 드리고 떡국을 먹었다. 이곳 필리핀에서 말이다!

여기치 못한 일정 변경에도 우리들은 새로운 교우신 분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언제나 활달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가이드를 자처하며 교생해준  
윤태식 군, 안락한 숙소와 잊지 못할 면발 면시를 만들어 주신 윤성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린 나이에 멀리까지 와서 학구열을 불태우며 동시에 언니, 오빠들을 응원해줬던 호준이, 은영이, 혜지, 혜리 등 친구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 Christmas

한국의 설날과 추석이라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크리스마스.

우리들에게 이곳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볼여주기 위한 Ate

Mayet의 배려로 우리는 Valle cruz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명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우체국을 비롯한 관공서는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친지들과 함께 나눌 음식을 장만하고, 새 옷을 준비한다.

Valle cruz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가 초대받아서 찾아가던 Ate Mayet의 친척집에는 사돈에 팔촌까지, 같은 배랑가이에 거주하고 있는 친지분들은 모두 모여 계셨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술도 한잔 걸치며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연말을 즐겼다.

평소 발군의 노래실력을 자랑하던 Yun과 Bona 역시 마이크를 건네 잡고, 손



님의 예의에 걸맞게 흥겨운 가락을 한 곡조 뽑아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분명 Tagalog 노래가 즐비한 노래방 기기에서 박진영의 '엘리베이터'와 같은 익  
 숙한 노래들을 무더기로 발견한 것이다! 덕분에 오랜만에 팀원들 모두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며 마음껏 소리 질렀다. 당최 무슨 뜻인지 몰랐을 테지만, 우리들의  
 노래소리에 정말 최고로 호응해주신 Ato와 친구분들,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  
 셧기에 더욱 감사 드린다.







## 6. Looking back...

-Yun

12월 달은 정말 길고 험난하고 힘든 시기였다. 왜냐고 묻는다면 12월 초부터 페스티벌, 중간평가, 워크캠프, 크리스마스까지 정말 주말도 없이 쉬 없이 달려 온 달이기에 정말 힘들고 뿌듯한 달이었다. 이번 12월 달에 느낀 점은 이렇다.

필리핀이란 나라는 Holiday를 중요시 여긴다. 장난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Holiday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필리핀의 Holiday를 함께 하고 함께 느꼈다. 칼라만시를 주 농작물로 재배 하는 곳이 팔라얀 시티인데, 일년 동안 힘들게 고생한 것을 하루에 풀 수 있는 장소와 자금을 시에서 시장님과 함께 제공해 주고 있었다. 일년의 노고를 하루 만에 풀 수는 없지만 각 바랑가이에서 온 사람들은 이 날을 정말 즐기고 있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소리 사물놀이를 들려 주었고 어느 곳에서 연주 할 때보다 더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이날은 서로 즐기고 웃고 떠들던 날이었지만 한 시의 축제와 시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데할 나위 없는 날이었다.

우리는 이 축제가 끝 난지 얼마 안돼 중간 평가를 맞이 했다. 다행히도 그 전



부터 이 중간 평가를 준비해 왔던 터라 그리 힘들진 않았지만 갑작스레 일정이 당겨져서 분주했었다. 하지만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서로서로 도와가며 진행했기에 다시 한번 우리 팀간의 팀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송실장님과 박총장님 정말 반가웠다!! 그래서 인지 정말 힘 내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 하였고, 정말 다행인 것이 좋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남은 두 달을 다시 한번 파이팅으로 보내자는 다짐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찾아온 워크 캠프, 가는구나 했던 워크 캠프를 드디어 맞이 했다. 이 워크 캠프는 즐거움과 슬픔, 좌절, 행복, 단맛 쓴맛 다 맛볼 수 있었던 캠프였다. 이 아이러인은 소수 부족으로써 한때는 외지의 도움 없이 살던 그 들은 이제는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살에 러전을 잃어 버린 그들에게 정부에선 집을 지어 주었지만 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물조차도 충분하지 못하다. 작년 워크 캠프도 참여 했었던 친구들이 말하길 작년엔 봉사 단체가 우리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봉사 단체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 좋은 사실이지만 이 속에서 만 좋은 것이 생겼다. 그 들은 이제 봉사 단체에서 무엇을 제공하지 않는 한은 외부인에게 친절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들을 모아 수업을 하던 도중 수업을 받던 한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와 저기선 신발도 주고 생필품도





주는데 왜 여기 있냐며 화를 내며 아이를 데려 갔던 일이 생각난다. 커뮤니티워커들은 항상 환대 받고 좋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도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천대도 받고 따가운 시선도 있다는 것을 이 워크 캠프 때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돌아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필리핀의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설날과 비슷하다. 친척집을 방문하여 안부와 새해 인사를 드리고 방문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문화였다. 우리는 한 집에 초대 받아 갔다. 항상 조용하던 마을도 크리스마스가 되니 정말 사람이 북적거렸었고 축제분위기가 흥분 풍겼다.

그리고 우리 처음으로 맞이 하는 여행을 떠났다. 다른 아년 필리핀 수도권인 마닐라였다. 그 곳에서 여행을 돌며 여긴 필리핀이 아닌 것 같았다. 높은 빌딩 중에는 차를 엄청난 인원이 몰려 있는 볼.. 여행에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편했고 즐거웠다. 하지만 반면에 다른 도시와 이 도시와의 차이점이 눈에 훤히 보이고 있었다. 이 차이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빈부격차이다. 한 곳에선 31일을 축하하며 술을 마시고 볼에서 쇼핑을 하는가 하면, 반면 다른 곳에선 구걸을 하고 박스에 물을 누인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빈부 격차란 문제는 어느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무

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라고 느낄 수 있었던 휴가였다.

이번 가을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이 한달 동안 정말 필리핀인들을 많이 만났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한 가을이었다. 이번 가을 만큼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 한달 동안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 기쁠 때와 슬플 때가 있었고 모두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라는 생각에서 신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 Bona

이제 진짜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12월은 정말 바빠바빠했던 일정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오로라를 다녀와 많이 변화한 우리는, 우리의 일정을 좀더 자세하고 알차게 계획해서 실행하였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정말 만족스러웠다. 우리가 만드려간 크리스마스트리에 받고 싶은 선물 적어 붙이기, 개구리 성장순서를 배우며 물채이송 물동 따라하기, 점토로 과일 만들기 등 전과 다른 다양한 주제와 여러가지 준비로 아이들은 흥미로워 했다. 그리고 전부터 생각하던 벽화를 추진했다. 이왕이면 중간평가 때까지 완성하기 위해 쉬는 날에도 나가서 페인트칠을 한 날도 있었다. 미술전공자도 없는 상황에서 어설픈게 완성되었지만, 다들 좋게 봐주어서 뿌듯했다.

해외에서 갖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은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3개월 전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시작하려니 한달 전부터는 집집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캐럴을 불러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아예 라얏의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진짜 필리핀식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은 운 좋게도 마닐라에서 보내게 되어서 진짜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불꽃놀이를 높은 곳에 올라가 내려다 보았는



데, 시내 곳곳에 작은 불꽃, 큰 불꽃들이 정말 장관을 이루었다. 이곳 필리핀은 크리스마스과 새해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친구나 애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한국과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다.

3기와 같은 일정으로 아이따를 다녀왔다. 그곳은 정말 서바이벌 그 자체였다. 장작을 파서 땀을 하고 물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떠와서 써야 했으며, 화장실도 정말 불편했다. 8일 동안 제대로 된 샤워도 하지 못하고 물 티슈로 몸을 닦고는 개운해 해야 했다. 하지만 8일 동안 이곳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함께 온 high Y와 college Y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다들 우리라 못하더라도 나이가 어렸지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서 배울 점이 참 많았다. 솔직히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못했다. 수업이 매일 계획되어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라 아이들도 바빴고, 아이의 부모님들도 ymca수업보다 다른 데 관심이 많아서 애들을 수업에 못가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좀더 친근하게 다가갔고 결국 마지막 날 밤 크리스마스 파티는 성공적으로 많은 아이따 이웃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뭔가 잘 풀리지는 않았던 워크캠프였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필리핀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나 기쁘다.

이 외에도 칼라만시 축제, 비자트립 등 정말 바쁘게 지나갔던 12월. 1월도 이





곳 생활을 정리하면서,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의 계획을 짜면서 바쁘게 지낼 것 같다. 나에게 잘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슬슬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 이곳 친구들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남기고 떠나고 싶다.





## - Soo

현지로 떠나기 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현지에서 보내게 되는 다섯 달 중 네번째 달이 활동의 정점을 달리는 가장 활발한 기간이 될 것이라는, 12월을 보내고 나니 그 이야기를 멋지게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나에게 벌써라는 말이 무섭게 와 닿고 있다. 12월, 지금까지의 시간들 중 가장 꾸준히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다. 그렇기에 더욱 보람차며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활기찬 한 달이었다.

12월 한 달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축제도 즐기며 직접 참가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10월부터 꾸준히 우리가 맡아 수업을 진행했던 태권무 교실을 마치는 졸업식도 있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온 중간평가와 크리스마스 파티, 그리고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아이리에서 일주일 동안 2010 Summer work camp를 다녀오는 시간도 가졌다.

모든 것을 위에서 언급했을 테니, 지금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고 싶다. 이곳 생활에서 모든 것이 막바지인 지금, 하루하루 바쁜 나날들을 보냈던 12월이다. 우리의 공식적인 스케줄 외에 나 혼자 스스로가 생각과 고민이 유난히 많았던,



그래서 더욱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거 같다. 나는 지금도 내 자신에게 일쑤라  
도 계속 질문을 만들어서 수시로 던지고 있다. 이곳에서의 여러가지 고민들이 나  
를 한없이 미스 지으며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며, 가끔은 물에 젖은 솜과 같이 내  
마음을 무겁게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질문을 던지며 유사하며 가까  
운 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며 나아가려하는 나의 이런 행동 모든것에 결  
국은 감사한다. 한국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다면 절대 알지도 못했을테  
고,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려 하지 않았을테니, 난 지금 새롭게 또  
다른 길에 조심스레 발을 내딛기 시작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또한  
물질적으로는 점점 풍요로워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쉽  
게 차가워지고 비워져 갈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다시금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  
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남은 한 달도 언제나처럼 밝  
게 이곳의 여러 친구들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마지막 마  
무리도 모두 멋지게 Fighting!



- Esther

매일 새로운 일들로 정신 없게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잠시 잠깐의 여유들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어느 날 보다 가장 바쁜 12월을 보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실 수 있는 커피 한잔의 여유를, 자기 전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족들과 잠깐 통화할 수 있는 여유들에 더욱 더 감사하게 여겨지는 날들이었다.

중간평가로 인해 주말 없이 일하던 우리에게 가장 갈급해 하던 격려와 칭찬이 그동안 누운 피로를 씻어 주었고, 7박 8일 동안의 work camp 일정 후 다녀온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일과 쉬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던 12월 말에는 울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도 마음을 나누며 함께 할 친구를 사귀며 감사할 일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찡찡도 느꼈다. 마지막 수업을 하며 다음을 기약해야 했던 Valle Cruz 아이들, 집안일을 도와야 하기에 학교에 올 수 없던 아이타의 아이들, 글을 읽는 것보다 장작을 굽고 불 지피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이 나의 가슴을 울렸다.

나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가무잡잡한 살이 하얗게 변하기를 바랐던 아이타의



아이들...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전보다는 그곳에서 만족한 채  
 다른 이들이 갖다 주는 선물에 익숙해질까 싶어 살길 원하는 사람들... 사실 이들이 밖  
 으로 나온다 해도 받아주지 않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결국 또 도태되어져  
 갈 그들... 어디서부터 그들을 도와야 할지 염두가 나지 않아 눈 앞이 캄캄하고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자연이 나에게 가르침을 선사했다.

아이티의 작은 산에 길을 만들며 올라가던 나에게 산이 숙삭였다.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험하거나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이다. 그러다 보면 어  
 느 순간에는 정상에 서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깨달음을 주며 말이다.

내가 이들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일은 함께 웃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라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을 위해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며 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 Min

“This way is never passed again.”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길은 훗날 두 번 다시 찾아 오지 않을 것임을 잘 알기에, 뒤돌아 서면 삶의 뒤 편으로 사라져가는 치열함의 흔적들이 때론 두렵다. 한걸음 뒤면 추억에서밖에 꺼내볼 수 없는 순간들이 될 것이기에.

나는 행운이다. 짧은 4개월 동안, 너무나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속에서, 과거 내 인생의 그 어떤 때보다 속 깊은 고민들을 했다. 지금 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이제는 그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조용히, 그리고 차분히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리라.

2010년의 절반을 Raonatti와 함께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던 평범한 대학생은 이제 그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펜을 들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작열하는 태양빛에 겁에 그을린 피부처럼 내 머릿속은 쓸 새 없이 타오르던 고민들로 새까맣게 채워져 갔다. 정해진 틀에 갇힌 단조로운 일상 속의 나는 이제 어느덧 그 평범함의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는 국제 나그네





가 되었다.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이해하고자 했고, 그들이 되고자 했다. 때론 쉬사리 다가갈 수 없었던 그들 때문에 힘겨워 했고, 때론 이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가슴으로 감사했다. 낯선 환경에 점점 적응해 가는 나 자신이 대견스럽다가도, 어느 순간 나태함과 만일함에 물든어가는 내가 서글퍼졌다. 치열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 방식대로였다. 끝내 버리지 못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들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래서 늘 무언가 모자랐다. 그들이 되고자 했던 내 다짐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그저 스펙 쪽기에 혈안이 된 20대의 경력 한 줄이 다는 아니었다. 당췌던 초심은 지키지 못했지만, 영광의 상처로써 머리와 마음에 새겨진 진실된 고민들은 내 가슴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다.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였다고 볼다, 그 순간순간에 충실했기에 가질 수 있었던 고민들, 버리볼다 가슴이 우선이었기에 타올랐던 열정, 여기 이곳에서 나는 살아있었다.



다섯 달은 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 라온아띠 4기 필리핀팀 -

